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청능언어팀)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p>청능언어재활사업</p>	<p>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용인 간 접촉기회를 최소화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재활사업을 유지하였음.</p> <p>청능재활의 경우 종결 이용인이 생겨, 하반기 대기자를 수용 할 예정임.</p>	<p>청각장애 아동의 재활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시기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의 재활이 가정 내 학습으로 변경되면서 부모님들의 염려가 크실 듯함. 청능언어재활에 대한 장기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치료실을 내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가정 내 재활연계 방안)</p> <p>와우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능재활의 중요성을 시기에 맞게 잘 강조하였음.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인원 달성은 미달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기자 관리 및 재활서비스 홍보 등을 통해 실적 부족분을 채워나가도록 함.</p>
<p>통합교육 환경조성 사업</p>	<p>통합교육교사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재활아동의 현행수준, 특성, 지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맞춤형으로 온라인 제작함.</p> <p>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교사가 아동을 직접 파악할 기회가 없었으나, 본 사업을 통해 교사가 아동의 장애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로 인해 자막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자막 서비스 신청을 돕기도 함.</p>	<p>그동안 재활아동에 대한 정보자료집을 제작하여 학교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 선생님이 직접 복지관을 내방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것이 사업운영 상 새로운 시도가 된 듯함. 재활시간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추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보는 것도 기관협업 및 교사이해도 증진 차원에서 도움이 될 듯함.</p>
<p>장애예방사업</p>	<p>난청에 대한 이해, 예방법 등 관련 정보를 비대면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였음.</p>	<p>코로나 19 상황을 계기로 사업운영방법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여 실시해볼 것. 온라인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볼 것.</p>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학습 지원센터)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상담 및 진단	<p>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개학 정상화가 안 될 경우, 청각장애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p>	<p>코로나 이후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절한 학습자극을 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변화도 고민해볼 것. (예 : 찾아가는 서비스)</p> <p>청음학습지원센터를 대표하는 핵심사업 선정이 필요할 듯함. 지난 3년 간축적한 학습 지원센터 운영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청음학습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른 센터와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브랜딩 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함.</p>
학습 및 진로지원	<p>코로나19 휴관기간동안 신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여 실적이 초과달성하였음. 온라인 학습퀴즈나 참여형 이벤트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음.</p>	<p>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함으로써, 거주 지역이나 코로나 변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안정감 있게 잘 진행한 듯함. 멘토링 사업을 통해 발굴된 멘토 40명을 잘 관리 운영해볼 것. 새로운 사업 시도를 멘토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듯함.</p>
사회성 향상 및 역량강화, 전문가 양성	<p>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임. R-스포츠전의 경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따라 온라인 로봇박람회나 창작 로봇대회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임.</p>	<p>IT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사업기획 단계 시부터 공모사업에 참가할 대상층을 먼저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미리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듯함.</p> <p>전문가 양성 사업의 경우, ‘발굴-양성교육-활용-컨설팅’ 사업이 단계별로 고르게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p>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지역복지팀)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지역사회 열린강좌 주민주도형 자원봉사단 및 자원봉사 운영	<p>열린강좌의 경우, 주민주도 봉사단과 지역사회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영상수업을 통한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함.</p>	<p>열린강좌와 주민봉사단의 경우 지역밀착 사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으 로만 운영하면 한계가 있을 듯함. 주민 만나기의 일환으로 대면과 비 대면을 적절히 분배하여 운영할 것. 주민주도봉사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구상해볼 것.</p> <p>온라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아이템이 좋았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도도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음. 코로나 이후에 도 온·오프라인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해볼 것.</p>
지역사회 인식개선	<p>온라인 교육 시대에 맞춰 인식개선에 필요한 영상자료제작 및 활용에 대해 준비하고자 함.</p> <p>대면교육의 경우 청각장애인 강사의 교육효과 가 높아 이에 필요한 인력풀 형성을 위해 노력 하고자 함.</p>	<p>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기업체들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체들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임.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보내 거나,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영상교육을 제공한다면, 지역사회 인식개선 을 지역의 욕구에 맞춰 진행해볼 수도 있을 듯함.</p>
지역사회 수어교육	<p>복지관 내 내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음.</p> <p>온·오프라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자료 활용 및 제작을 준비하고자 함.</p>	<p>코로나19 상황이 조기종식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with 코로나 국 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소규모로 다양한 집단을 운영하고, 대면과 비 대면 을 병행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보는 게 필요함.</p>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가족사례지원팀)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가족프로그램 (영유아, 코다)	가족의 특성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므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가족 수요에 맞게 진행하고자 함.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과 활동 후기 인증의 편리성을 위해 온라인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가족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체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음. 활동키트가 가족이 함께하기에 적합한 게 많았음. 이번 가족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집합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함.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면 좋을 듯함. (프로그램 비수기인 1~2월, 7~8월에도 운영가능, 지리적 제한점 보완 등)
사례관리 사업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하고자 함. 외부 지원 사업 연계 시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타팀 간 공유와 추천협조를 받고자 함.	사례관리 사업은 가족사례지원팀의 핵심 사업임. 핵심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가족사례지원팀에게는 있음. 이번 평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보완사항들을 잘 적용하여 사례관리 사업이 성과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사례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빠르게 하여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권익옹호 사업	이용인 인권교육은 하반기부터 정기프로그램 이용인을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운영할 계획임. 권익옹호 홍보 리플렛 제작을 함으로써 이용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장애인 복지사업의 추세가 장애인 인권과 권익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음.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를 잘 인지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게 중요함. 담당자들도 권익옹호 사업운영에 필요한 직무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것.
가족운동회, 청올림 축제	가족운동회의 경우 청각장애 가족의 건강유지와 가족관계형성을 위해 방구석 태블대회 형식으로 운영하였음. 내년에도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될 경우 비대면 으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키트발송을 구상 중에 있음.	가족운동회의 경우, 올해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응을 했지만, 차기년도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한 사업운영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음. 청올림 축제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큼. 하반기 가족사례지원팀의 핵심 사업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규모 있게 잘 운영해볼 것.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직업지원팀)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구직등록 및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확정	<p>2017년~2019년 등록 이용인을 대상으로 내방을 유도하여 실적향상을 꾀함.</p> <p>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응지침에 의거하여 방역을 철저히 한 후, 대면서비스로 사업을 운영하였음. 특히 외근 시 동선관리를 철저히 하였음.</p>	<p>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직업지원 팀원 분들 모두 수고하였음. 특히 119명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그 중 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함. 보도 자료를 만들어 직업지원팀이 이뤄낸 성과를 외부에 알렸으면 좋겠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속에서도 청음복지관은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보도)</p>
작업활동 프로그램	<p>상반기 동안 이용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p> <p>하반기에 만약 10명 이상의 이용인이 올 경우, 1일 2개조 운영, 격일 혹은 격주출석 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예정임.</p> <p>세부프로그램은 출석인원 수와 코로나 대응단계별 조치를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임.</p>	<p>복지관 휴관 상황에서도 돌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왔다고 생각함. 특히 이용인분들과 담당자가 함께 이용수칙을 잘 지키며 운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p> <p>하반기에도 이용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함. 당일여행은 코로나 확산추이를 지켜본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볼 것.</p>
직업적응훈련	<p>휴관기간 동안은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5월부터 집합교육을 재개하였음. 현재는 외부교육(엘까페탈)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내방하여 교육할 수 있는 강사(자원)개발이 필요할 듯함.</p>	<p>하반기 기관의 대표사업인 청각장애인 전국 바리스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관할지자체에 바리스타 대회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해볼 것. 다양한 후원업체와의 연계로 인해 행사의 퀄리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것.</p> <p>하반기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볼 것.</p>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평생학습팀)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하이런 포털	<p>학습동영상 자막 제작편수는 총 466편이고, 연 인원 10,133명임.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을 대체한 온라인 학습동영상이 추가 제작되었고, 청년재단과의 MOU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에도 자막제작을 진행할 수 있었음. 학습동영상 자체제작 매뉴얼을 제작하여 업무협조 및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도록 할 계획임.</p>	<p>평생학습 포털 운영사업은 여러 방면에 걸쳐 잘 진행되고 있음. 최근 스튜디오 공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향후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체영상을 제작하고 타 팀 사업과도 활발한 사업적 연계를 시도해볼 것.</p> <p>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며 온라인 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을 당부함.</p>
자조모임	<p>자조모임 선정 및 운영기준과 적절한 예산관리를 유도하고자 자조모임 사업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행하였고, 서류-면접-선정회의 과정을 거쳐 우수한 모임을 10개 선정함.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관리·운영 하도록 함.</p>	<p>자조모임 사업의 경우 기관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후, 단계별 성장을 이뤄낸 듯함. 올해는 안정적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긴 듯함. 올해 선정된 10개 모임이 온·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조모임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도 나올 수 있도록 담당자는 자조모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함.</p>
어르신 대학 문화지원	<p>어르신 대학 이용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방식변경을 시도함. (개별상담, 가정방문, 긴급물품지원, 수어영상뉴스)</p> <p>어르신 개별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립상태를 파악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함. 수어영상뉴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p>	<p>상반기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대체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운영하였음. 어르신의 특성 상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고, 이동 시의 감염위험으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운 대상층임. 하반기에는 대상층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문화지원과 행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p>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기획홍보팀)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p>관보(청음)제작</p> <p>홍보사업</p>	<p>관보의 경우 우편 발송과 동시에 SNS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웹진 구독률을 높이고 있음. 추후엔 관보 제작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홍보물을 개발 할 예정임.</p> <p>기관 홍보물 제작 시 저작권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포함.</p>	<p>홍보 TF회의를 통해 제작되는 관보(청음)는 전반적으로 내용과 디자인 측면에서 가독성이 높아진 것 같음. (청각장애인 및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시점고려) 코로나로 인해 영상자료가 많이 나오면서 기관 영상물 관리가 필요할 듯함. 온라인 홍보사업의 방식도 다양하게 시도해 볼 것.</p> <p>영상으로 하는 홍보가 현 시대적 요구(교육 및 소비물로서의 영상수요 증가)와 잘 맞물리면서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p>
<p>시설관리 및</p> <p>기능보강</p>	<p>상반기 중 네트워크 환경개선 공사와 주방 방수공사를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행함.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보 보강 필요, 옥내 소화전 펌프 작동 미흡)</p>	<p>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휴관시점에 맞춰 시설에서 필요했던 기능보강사업을 잘 진행하였음. 하반기에는 관할 지자체와 잘 연계하여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도록 함.</p> <p>하반기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며 시설 운영(기관방역 및 시설관리)하도록 함.</p>
<p>사회복지</p> <p>현장실습</p>	<p>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조건에 부합해야만 실습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실습교육의 전문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내부평가와 운영사항 점검이 필요함. 청각장애 전문 복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습 교육과정 개발 필요.</p>	<p>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하였음. 기관 실습과정 및 슈퍼바이저에 대한 슈퍼바이저들의 만족도 평가제도 도입은 시도 해보면 좋을 듯함. 청각장애 전문 복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습교육과정도 잘 개발하여 운영해볼 것.</p>

2020년 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경영지원팀)

사업명	평가 논의사항	반영계획
인사 및 노무관리	<p>채용공정성을 위한 법안 시행으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신규위촉과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p> <p>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복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직원 복무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안내가 필요함.</p>	<p>외부 인사위원 위촉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외부 인사위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는 인사채용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함.</p> <p>노동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담당자의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노무사에게 정기자문을 받으며 노무관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함.</p>
관공서 대응	<p>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에 따른 관(서울시, 강남구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옴.</p> <p>휴관 혹은 부분운영 상황에서 기관운영 규모, 방역수칙 준수여부, 직원 복무현황 등을 관할지 자체로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받고 있음.</p>	<p>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기관 운영에 필요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맞춘 운영사항을 수정·보완하면서 관과 함께 감염병 국면상황을 잘 대응해왔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함.</p>
예산 및 회계 후원자 개발 및 관리사업	<p>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 사업비 예산 집행실적이 작년 대비 다소 저조함. 하반기에 사업비 집행이 편중되지 않도록 팀별 예산 변경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함.</p> <p>후원물품 수령 후 배포에 대한 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후원물품 대장관리를 진행하고자 함.</p>	<p>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사용계획과 실적점검을 하반기 시작 전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함. 2차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신규 공모사업 예산을 반영하되, 필요시 각 팀별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계획 수립도 검토해볼 것.</p> <p>후원금·품 관리에 있어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후원품의 경우 대장관리를 통해 후원품 수령 및 배포완료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운영 하도록 함.</p>